

"포교·복지 불사에 역량 결집"

동국대 동림동문회장 자용스님



"승가교육의 정비와 신도 교화의 활성화, 포교와 사회복지사업 등 백년대계 불사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동림동문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자용스님(수국사 주지).

스님은 '중생들이 건너가는 다리가 된다(而於衆生猶如橋梁)'는 (유미경) 불도품을 인용하며 "경제위기, 공해와 질병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難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의 사

찰과 포교당에서 전법도생(傳法度生)에 매진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대승적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사색과 강한 행동력을 결집시켜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조계종 제2 보현의 집 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제2 보현의 집(원장 능관)'을 개원했다. 80평 규모의 2층 단독건물에 마련된 보현의 집은 실직자들을 위한 종합복지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잡자리 제공, 실직자 자녀 일시보호 및 결연사업, 취업·법률·의료·가정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 실직노숙자들의 자활을 돕게 된다.

27일 천안 천불암서 법문

도건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은 27일 천안 천불암에서 봉행되는 큰스님초청법회에 참석 법문한다. 천불암은 매월 음력 5일 큰스님초청법회를 연다.

청소년 환경포스터 전시회

성타 청정 국토만들기 운동본부회장 스님은 11일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제4회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했다.

하계 출가수련 법회

밀운 봉선사 주지는 28~31일, 8월6~9일 두 차례에 걸쳐 하계수련회를 봉행한다. (0346)555-5974

도선사 1천불 점안식

동광 도선사 주지는 11일 도선사 참회원 대강당에서 제2차 1천불 봉안 점안식을 봉행했다.

"불자들에 전통시가 알리고 싶어"

직지사에 장서 4천권 기증 정완영시인



4천여권의 장서를 비롯해 만년필, 지팡이 등 자신이 쓰던 물건을 2일 경북 김천 직지사로 보낸 80세의 원로 문인 백수(白水) 정완영씨. "독원스님께서 제 개인 시조 문학관을 세워달라는 청을 받아주셨어요. 직지사에서 30리쯤 떨어져 있는 금릉이 고향이거든요. 여렸을 때 자주 오르내렸던 직지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 지금 사는 연립주택마저 팔아야 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천권의 책과 물건들을 지니고 있기도 조차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쓰면서 외로운 때마다 퍼본던 일기장도 함께 실려 가던 날 노시인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다.

생각하니...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새 희망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내년쯤 문학관이 세워지면 불자들에게 우리 전통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고향인 부처님 곁으로 돌아갔으니 그래도 절서운하다는 정완영 시인. 하지만 전통시를 지킬 줄 모르는 이 사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달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는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은행: 023-21-0551-926 ●조흥은행: 390-04-261032 ●농협: 053-12-053051 ●우체국: 010041-0339839 (예금주: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재래기와보다 내구성·미관 우수"

6백년만에 청동기와 재현 손동일씨 "부처님을 모시는 집이 비가 새 썩어 쓰러지는 것이 안타까워 청동주물기와 복원에 나섰습니다." 8개월간 일체 다른 일에서 손대고 청동주물기와 복원에 몰두, 6백년만에 재현해낸 불교조각가 손동일씨(42). 불교조각을 천직으로 여겨오던 손씨는 청동주물기와를 복원하기 위해 서울대 이영배명예교수의 고증을 받아 재래식 기와의 장단점을 파악 했다. 또 8개월간 조각 주문을 받지 않은 채 일을 하다보니 거래처가 점점 끊기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손씨가 복원해낸 청동주물기와는 1360년경 중창된 통도사 법당에서 몇 점 발견되기도 했지만 많은 전란을 거치면서 무기로 재활용돼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재래식기와보다 가볍고, 영구적이며, 외관상 고풍미가 더해져 사찰건축물에 적합하다. 또 시공방



법이 재래식기와와 똑같이 전통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95년 황룡사 치미를 청동주물로 재현, 천안 각인사에 시공하기도 했던 손동일씨는 "앞으로 성철스님 등 고승들의 모습을 제작,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그 높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opia.com)



마창·진해 사암련 경제난 극복법회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경호·원각사 주지)와 진해불교연합회(회장 상운·정암사 주지)는 11일 상주사 대웅전에서 '지역 경제난 극복과 시민안녕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마산·창원·진해시 민선2기 출범을 기념해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지인(성덕암) 벽봉(보은사) 스님을 비롯 김인규 마산시장, 김병로 진해시장 등 3백여명이 참석, 경제난 극복을 발원했다.



직지사 첫 군불자 합동 수계식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12일 만덕전에서 관내 군불자장병 1백95명을 대상으로 제1회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계사인 법등스님은 "군수계법회는 교사불자회 운전불자회 등을 조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군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계를 받은 군불자들 가운데 장기자를 통해 선발된 5명의 장병이 포상유가를 떠나기도 했다.



불교교회원 이사장 윤월스님 취임

한국불교교회원 제8대 이사장 윤월스님 취임식이 13일 국방부 호국원관에서 불교교회원 이의운총재, 보현사주지 정진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사장 윤월스님(불교여래원 원장)은 "무명과 무지를 지혜의 빛으로 깨뜨려 나가는 구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며 절대귀담으로써 사회의 불국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이웃과...' 행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혜창)은 10일 본관 3층 식당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초록빛이' 행사를 개최했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1백20명이 초청된 이날 행사에서는 음식공양과 보자기 기증식,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날 보자기 수혜자는 모두 6명으로 윤현정·박연서씨가 차례를, 최일용씨 등 4명이 알미는 목발, 크락지, 에어매트를 증정받았다.



돌풍부대 석림사 삼존불 봉안

경기도 육군 돌풍부대 석림사 삼존불 점안법회가 13일 법타스님(영천 은해사주지) 법륜스님(심우회 지도법사) 호택스님(법음사주지) 부대장 한승민대령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석림사는 4월부터 양춘연보살을 비롯하여 불자들이 합심하여 법당중축, 요사채, 급수시설및 각종 편의시설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날 완공을 보게됐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불교학사 과정 ○○명
- 강의시간: 출강/통신: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교과목: 주5일 수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8월 31일까지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당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756-7258

실용신안등록 97-18095

향운정주

향로에 넣는 유리구슬

● 1Kg ● 1Kg×5개

향운정주는 순수 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향운정주는 그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향운정주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의 방출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또한, 법당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운정주 SET (향운정주, 청자향로, 고급함)

● 주식회사 세호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7-30) 전화: (02)272-8886(대) 팩스: (02)278-6675

전국취급점모집중